



# 한국의 보물, 해인<25>

## 제2부 한국불교와 해인신앙

### 해인사 창건 연기설화 하나

고려 태조 26년(943)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야산해인사고적(伽倻山海印寺古籍)」에는 해인사의 창건을 좀 더 전설적인 설화로 엮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가야산 해인사는 해동(海東)의 명찰(名刹)이다. 옛날 양(梁)나라 때의 보지공(寶誌公)이 임종 시에 제자들에게 「답산기(踏山記)」를 주면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고려(高麗)의 두 스님이 와서 법을 구할 것이다. 그때 그들에게 이 책을 전해주라.”라고 했다.

그 뒤에 과연 순응(順應), 이정(理貞, 이(利)의 오기(誤記)일 것이다. 필자 주) 두 대사가 중국으로 가서 구법(求法)하였다. --- 두 스님이 그 말을 듣고 공(公)의 묘소에 찾아가 --- 밤낮 이레 동안을 선정(禪定)에 들어 법을 구했다. 묘문(墓門)이 저절로 열리고, 공(公)이 나와 설법하고 의발(衣鉢)과 신발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보지공이) “너희 나라 우두산(牛頭山) 서쪽에 불법(佛法)이 크게 일어날 곳이 있다. 너희들은 돌아가 별보대(別補陀)해인사(別補陀伽藍海印寺)를 세우라.”고 명하고는, 다시 묘문(墓門)으로 들어갔다.

두 스님이 신라로 돌아와 우두산 --- 서쪽으로 내려가다가 사냥꾼들을 만나 --- “절을 지을 만한 곳이 없던가?”라고 물었다.

사냥꾼들은 “여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물이 고인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철와(鐵瓦)가 많으니 그곳에 가보시오.”라 했다. 드디어 두 스님이 그곳에 이르러보니 마음에 흡족하였다. 풀을 깔고 앉아 선정에 들었는데, 이마에서 광명이 나와 붉은 기운이 하늘에 뻗었다.

그때 신라 제 39대(40대의 잘못이다. 필자 주) 애장왕(哀莊王)의 왕후가 등창병이 났었는데, 어떤 약도 효력이 없었다. --- 왕후가 병든 사연을 이야기하자, 두 스님은 오색실을 주면서 “이 실의 한끝을 궁전 앞에 있는 배나무에 매고, 다른 한끝을 아픈 곳에 대면 나을 것이다.”라고 말해주었다.

--- 과연 배나무는 말라죽고 (왕후의) 병은 나았다. 임금이 고맙게 생각하여, 나라 사람들을 시켜 이 절을 짓게 하였다. 그때는 애장왕 3년(802)이며, 당(唐)의 정원(貞元) 18년이다. ---



해인사 일주문

앞에서 살펴본 최치원의 기록이 사실 기술적이고 객관적인데 비하여, 위의 기록은 상당히 신비적이고 설화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해인사의 창건에 얽힌 사연을 신비화시키고자 한 후대인의 심리적 표현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는 그 전 체적인 줄거리의 토대는 최치원의 기록과 동일하지만, 거기에 다분히 전설적이고 설화적인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덕무(李德懋, 1741 - 1793)의 「기해인사팔만대장경사적(記海印寺八萬大藏經事蹟)」에도 중국의 보지도인(寶誌道人)이 죽을 때 「답산기」 1편을 순응과 이정에게 전해주는 유언을 남긴 일, 두 스님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지공(誌公)이 죽었던 일, 두 스님이 지공(誌公)의 무덤 앞에서 3주야를 주문과 염불을 외웠더니 그가 나타나 “신라 우두산에 사찰을 세우라.”고 말해주었던 일, 그 후 신라로 돌아온 두 스님이 애장왕의 왕후의 등에 난 종기를 치료해 준 일, 왕실의 도움으로 사찰을 건립하게 되었던 일 등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앞의 기록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선정(禪定)”이 “주문과 염불을 외우는 일”로 바뀌었고, 기도한 기간이 7일에서 21일로 늘어났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신라 문무왕(文武王) 16년(676년)에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하고 곧이어 해인사, 화엄사, 범어사 등의 이른바 화엄십찰(華嚴十刹)에서도 화엄종지(華嚴宗旨)를 펴게 했다고 적혀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마치 해인사가 이미 7세기 말에 세워졌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전하는 화엄십찰이 의상 당시에 모두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화엄십찰은 의상의 제자들에게 의해 훨씬 후대에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해인사의 창건주인 순응도 의상의 법손(法孫)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순응과 이정 두 스님은 신라 혜공왕(惠恭王) 2년(768년)에 법을 구해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이미 250여 년 전에 죽은 양(梁)나라 때의 인물인 보지공(寶誌公, 417 - 514)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보지공의 신성함에 가탁하여 해인사의 창건이 신비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애장왕(哀莊王)은 경진년(庚辰年, 800)에 13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애장왕이 을유년(乙酉年, 805) 정월에 박씨(朴氏)를 비(妃)로 맞아들였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권 10의 기록에 따르면, 애장왕 2년(801)에 순응과 이정 두 스님이 애장왕 왕후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기록과 전언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도 역시 역사적 사실을 종교적 진실로 변용시킨 예이다.

필자는 불심(佛心)이 유달리 깊었던 애장왕의 할머니인 성목태후(聖穆太后)가 해인사 창건의 대시주(大施主)였다는 최치원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선 성종(成宗) 22년(1491년)에 「해인사중창기(海印寺重創記)」를 썼던 승정원(承政院) 부승지(府承旨) 겸(兼)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이었던 매계(梅溪) 조위(曹偉, 1454 - 1503)가 성종 21년(1490년)에 해인사를 중창할 때 발견된 전권(田卷) 43통을 보고 「서해인사전권후(書海印寺田卷後)」라는 기록을 자신의 문집인 『매계집(梅溪集)』에 남겼다.

매계의 주장에 따르면 해인사는 신라 헌강왕(憲康王) 11년 을사년(乙巳年, 885년) 이전까지는 북궁해인사(北宮海印臺)라고 불렸으며, 진성여왕(眞聖女王) 4년 경술년(庚戌年, 800년) 이후부터는 해성대왕원당(海成大王願堂)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진성여왕이 자신과 각별한 관계에 있던 각간(角干) 위홍(魏弘)이 진성여왕 2년(888년)에 죽자, 그를 해성대왕(海成大王)으로 추존하고 해인사를 그의 원당(願堂)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그 후 진성여왕은 정사년(丁巳年, 897) 6월에 효공왕(孝恭王)에게 양위(讓位)한 후, 북궁(北宮) 즉 해인사에 머물다가 그해 12월에 죽었다. 이는 그녀가 죽어서도 위홍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북궁해인사가 해성대왕원당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해인사는 ‘북궁해인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창건될 당시부터 해인(海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인사가 해인이라는 보물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창건되었다는 해인설화는 허구(虛構)이지 사실(事實)은 아님이 확인되었다. 물론 허구가 갖는 진실, 즉 종교적 믿음에 기초한 진실은 엄연히 별도로 존재하지만 말이다.\*

김탁백사/신종교연구가

## 감로수 이슬성신이 임할 때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극락정토 성도들의 불가사의 신비체험

감로 이슬의 오묘한 맛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현상들로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본다.

먼저 불성신이 임하게 되면 몸에서 종이 타는 냄새와 썩은 피가 타는 소위 죄 타는 냄새가 난다. 즉, 불명이 같은 감로수 광명의 이슬성명 기운이 임해서 온몸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 웅맹정진하여 올라가게 되면 입 안에서 뱀속까지 시원한 생수가 흘러 내려가는 느낌을 받는 생수 은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다음 단계에 이르게 되면 백함꽃 향기와 같은 강한 감로수 이슬 향취를 체험하게 되며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삼매를 지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한없는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경지에 오르게 된다. 이 감로수 이슬 은혜의 체험을 계속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워

워지는 체험도 하게 되며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 마음 천국을 이루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각 경전과 예언서에는 미륵불 조희성님에게서 내리는 이슬 성신의 빛이 무한대로 비치면서 노인이 순식간에 16세의 몸으로 회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때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 사진을 찍으면 틀림없이 감로해인, 이슬 성령이 다양하게 빛의 형상으로 포착된다. 더욱더 노력하여 나아가게 되면 인간의 못된 성격이 바뀌어 하나님 마음으로 정화되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이룬다. 이러한 최연의 소멸을 받은 성도들은 은혜 체험의 강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소변으로 몸 안의 썩고 탁해진 피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플라 색깔의 형태로 배출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승리제단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신비 체험인 것이다. 세상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 환자도 이 이슬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면 쾌거에 낫는다. 신체가 젊어지는 갱년 현상, 끊어졌던 경수가 다시 시작되는 현상, 흰머리가 점점 검어지는 신비체험,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신비체험을 승리제단에서는 공통적으로 체험한다.

각 경전과 예언서에는 미륵불 조희성님에게서 내리는 이슬 성신의 빛이 무한대로 비치면서 노인이 순식간에 16세의 몸으로 회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증표가 되는 이슬만 나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러운 죄인의 몸과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거할 수 없



\*정도령과 불로불사, 강연회 때 내린 감로이슬성신

으며 이슬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몸과 마음의 그릇과 자격이 되어야 받아지는 것이지 노력 없이, 마음 문을 열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감추었던 하늘의 만나인 것이다.\*

## 새로운 보혜사 성령의 새말씀 【14】

### 11. 이긴자구세주 하나님이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신 구세주 하나님이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라(요11:25)”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가 평소 제자들에게 자기 구세주라 하며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처럼 말했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생명이요 영생의 신이다. 예수를 믿으면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은, 불사영생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이며, 인류를 속여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적그리스도이다. 또 스스로 구세주라 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절도요, 강도짓이다. 이 말이 맞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가 했던 말

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성경 말씀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사 43:11, 사41:1-5).

요한복음에도 예수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고 했고,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말씀을 할 것이라 했다(요14:16-30). 예수 이후에 이 세상 임금이 되시는 구세주가 새로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새 말씀을 한다면, 보혜사 성령의 말씀이 참 진리요, 길ियो,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류의 구세주로서 생명의 길잡이가 되려면, 성경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과 이슬성신과 만나를 가지고 나와서 먹게 하여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죽은 근원이 되는 원죄와 마귀 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라야 불사영생의 진리말씀을 통하여 죽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예수는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요, 아

버지는 농부라” 했다. 에스겔서에는 포도나무에 대하여 아무 제재에도 합당하지 않으며, 불에 태울 화목제로 쓰일 뿐이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도나무 예수를 대적하여 불사를 것이라 했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도 그와 같이 불사를 것이라 고 직설적으로 예언하고 있다(겔15:1-8).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하며 포도나무를 대적하여 불사르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자기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스스로 구세주라 했고, 자기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며, 못 인생들을 사망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 공중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갈 것이라 하여, 2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거짓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대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참 진리는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 안에 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계시록

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과 이슬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했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지상천국을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다(창3:22, 사26:19, 사43:11, 사41:5, 사59:1, 계2:7-3:21). 참 구세주는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이여 구원의 능력을 가진 분이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오실 사망을 이기신 참 구세주의 말씀이 길ियो, 진리요, 생명이 된다.

디도서에는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이라(딤후1:2)”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불사영생의 역사가 구세주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며, 구원의 주체가 곧 하나님이 받아 올라갈 것이라 하여, 2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거짓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대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구원자이다

고린도전서에는 이긴자 구세주 하나

님이 오셔서 행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전15:51-54)”라고 했다.

이 말씀은 사망을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이 진리의 철장을 가지고 나와서 만국을 다스리고, 감추었던 이슬 만나와 생명과 이슬을 먹게 하여,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또한 강력한 이슬성령의 빛으로 사망의 신을 소멸해버릴 때, 이 세상이 홀연히 변화되어 인류가 꿈꾸어 오던 지상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성경은 마지막 때 오실 구세주의 조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그 중에 계시록에 기록된 이긴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계2:7-3:21). 곧 이긴자가 출현하는 시점부터 영적 부활과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되는 새 예루살렘의 성지가 된다.

한민족의 대언서 격암유록에는 이긴자가 출현하여 역사하는 곳을 “시종간야 소사지(始終間也 素沙地) 천봉지탁 소사림(天崩地塌 素砂立)”이라 했다. 이 말은 하늘나라가 무너져도 소사에서 다시 일어나며, 소사 땅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사원지이며 끝맺을 곳이라는 뜻이다. 또한 토정 이지함 선생은 기해상원일서에 역국승지(驛谷勝地)라 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예언하는 구세주의 인이 출현할 동방 땅골 땅모퉁이 나라 대한민국의 천년왕국을 이루고 다스릴 새 예루살렘 성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짝이 맞는 말씀이다. 곧 이긴자 구세주 정도령님이 역사하시는 부천시 소사구 역곡 땅이 천년을 두고 영생의 역사를 펼쳐나갈 승리의 땅이며 새 예루살렘의 성지가 된다.\*

一行 徐輔睦